

낙도 수험생들 1박2일 수능 상륙작전

전남 섬 8개 학교 184명 시험 전날 모텔·친척집서 숙박 수능 보러 배타고 1시간... 학부모 6명 생업 중단하고 동행

11일 신안군 하의면에 사는 이문평(52)씨는 하루종일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 12일 예정된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을 보기 위해 이날 오전 배를 타고 물으로 떠난 아들 민흡(18)이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이씨는 “민흡이가 출발한 뒤 기도를 올렸다”며 “담뱃거리지 말고 침착하게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에서 가장 먼 고등학교인 신안 하의고 3학년 민흡이는 이날 오전 8시 하의면 응곡선착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 9명, 교직원 등과 함께 목포행 페축선에 올랐다. 계속선으로는 1시간10분, 카페리 선박으로는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다.

목포로 향하는 배에는 하의고 학부모 6

명이 함께했다. 차마 수능을 치르는 자녀만 따로 보낼 수 없어 이날 하루 생업을 중단하고 함께 육지 행에 나선 것이다. 일이 바빠 함께 배에 오르지 못한 일부 아버지들은 선착장에서 자녀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용기를 북돋았고, 배가 떠날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기도 했다.

민흡이의 어머니 김옥희(50)씨도 급한 일을 끝내고 오후에 목포행 배에 올라왔고, 이씨는 12일 목포로 나가 수능 시험을 끝낸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할 계획이다.

하의고 3학년 수험생들은 매년 수능 때면 하루나 이틀 앞서 물으로 향하고 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들은 목포에 있는 친척

집이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수능 고사장으로 향한다.

이씨는 “18년 동안 섬에서 학원 한번 안 보내고, 과외 한번 못 시키고 민흡이를 키웠는데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 준 아들이 대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결과가 좋아 섬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든 추억을 갖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의고 3학년이 10명밖에 되지 않아 ‘학생 수가 13명 미만이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아들이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진도군 조도면 조도고 3학년 학생 4명도 이날 오후 1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진도읍으로 향했다. 그러나 시험장이 목포에서 최근 진도로 옮겨져 거리는 가까워졌다.

한울(여·18)이의 아버지 장원(44)씨는 “멀리 나가 시험을 보는 딸이 늘 하던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능을 마쳐, 원하는 대학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도고 학생들은 진도읍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2일 교직원들이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고사장인 진도고로 향할 예정이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민흡이처럼 올해 ‘수능 원정길’에 나서는 전남 섬지역 수험생은 8개교 184명이다. 지역별로는 ▲진도 조도고 4명 ▲신안 하의고 10명·임자고 16명·안좌고 17명·노초고 57명 ▲완도 금암고 23명·노화고 34명 ▲여수 여남고 23명 등이다. 교육청은 교통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순천대 박진성 총장 30일 취임



순천대는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된 박진성(사회체육학과) 교수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총장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대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총장은 순천대에서 학생부처장, 인문예술대학장, 교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순천대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신임 총장 임명에 반발한 교수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총장 임명 철회’와 ‘현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1순위 후보였던 정순관(행정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잘 살겠습니다”... 고려인마을 합동결혼식
고려인마을 주민 10쌍의 합동결혼식이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후원으로 열렸다. 예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초학력 부진 학생·소규모 학교 중점 지원

광주·전남 교육청 내년 예산 들여다보니

광주·전남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중점 추진 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뼈대한 살림살이에도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기초학력 향상에 방점을 찍은 예산 편성임을 엿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라는 명목으로 1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열악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2억6000만원에 비해 무려 345%(9억)를 증액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정후국표 대책’

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 특성학교에 대한 지원 의지도 드러난다. 특성학교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건위 178%가 늘어난 16억1700만원을 반영했고 특성학교 교육내실화지원사업도 전년도보다 205.9%가 늘어난 17억6100만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특성학교 관련 예산만 전년도보다 50%가 늘었다.

일각에서는 기초수급학생 안심알리미 사업비가 전년도(6억6000만원)에 비해 5

억7000만원이 삭감되는가 하면, 학교안전 강화와 민간경비원 인건비 8억7000만원이 삭감되는 점 등과 연계, ‘우선 순위’ 논란이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전남도교육청도 지역 특성을 감안, 소규모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강조한 예산 편성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없는 살림에도 지역·학교간 불균형 해소 위해 소규모학교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2억9300만원), 도서벽지학교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2억)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4 해질 07:11
해질 17:29 달질 18:05

‘오늘 수능’ 추위 없어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9/20 | 보성 | 구름많음 | 8/18 |
| 목포 | 구름많음 | 9/19 | 순천 | 구름많음 | 11/20 |
| 여수 | 구름많음 | 13/17 | 영광 | 구름많음 | 7/20 |
| 나주 | 구름많음 | 7/20 | 진도 | 구름많음 | 9/19 |
| 완도 | 구름많음 | 11/19 | 전주 | 구름많음 | 9/19 |
| 구례 | 구름많음 | 7/19 | 군산 | 구름많음 | 8/17 |
| 강진 | 구름많음 | 8/19 | 남원 | 구름많음 | 7/18 |
| 해남 | 구름많음 | 7/19 | 홍산도 | 구름많음 | 13/16 |
| 장성 | 구름많음 | 7/19 | | | |

◇비다 날씨

| 지역 | 구분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동~동 | 0.5~1.0 | 북동~동 | 0.5~1.5 |
| | 먼바다 | 북동~동 | 1.0~2.0 | 북동~동 | 1.5~2.5 |
| 남해서부 | 앞바다 | 북동~동 | 1.0~2.0 | 북동~동 | 1.0~2.0 |
| | 먼바다(동) | 북동~동 | 1.5~3.0 | 북동~동 | 2.0~3.0 |
| 남해서부 | 앞바다(서) | 북동~동 | 1.5~2.5 | 북동~동 | 1.5~2.5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자외선 | 보통 |
| 산불 | 낮음 |

◇물때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02:08 | 07:27 | 14:43 | 19:57 |
| 여수 | 밀물 | | 썰물 | |
| | 09:24 | 02:49 | 21:24 | 15:25 |

◇주간 날씨

| 13(금) | 14(토) | 15(일) | 16(월) | 17(화) | 18(수) | 19(목) |
|-------|-------|-------|-------|-------|-------|-------|
| ☁ | ☁ | ☀ | ☀ | ☁ | ☀ | ☁ |
| 21/15 | 13/20 | 11/19 | 10/19 | 12/18 | 12/19 | 10/14 |

5·18재단, 총선 승리 수치여사에 축전

윤장현 시장도 축하서한

5·18기념재단은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웅산 수치 여사 측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11 일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수치 여사는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들에게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5·18기념재단은 축하메시지에서 “이번 아웅산 수치 여사의 승리가 35년 전 군부에 맞서 싸운 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던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면서 “5·18기념재단은 이번 총선승리로 미얀마 민주화의 새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이어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의 총선 승리는 민주주의의 과도를 겪고 있는 수많은 아시아

국가에게도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커다란 햇볕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치 여사는 지난 2004년 버마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시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된 탓에 곧바로 수상하지는 못했다. 가택연금이 풀린 뒤 지난 2013년 1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시 명예 시민증을 받은 것도 이때다.

수치 여사는 당시 “광주는 나와 버마 국민이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군사정권에 맞설 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시로 항상 굳건한 연대의식과 동지애를 느끼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 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난 10일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서한과 성명을 통해 승리를 축하했다. /김형호기자 khh@

진도 폐가에서 숨진 女 신생아 발견

진도의 한 폐가에서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40분경 진도군 의신면 한 마을에 있는 폐가 뒷뜰에서 숨진 신생아를 발견

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숨진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알몸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번호: 2015-GN1-36-0094]

보청기 맞춤렌탈

- 대한보청기 -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01 | 한달 3~4만원 **02 | 제반서비스 무료...** **03 | 맞춤귀속형** **04 | 무료방문 홈 서비스**

◆강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맞춤렌탈 모델

01 | 맥소 프로 (개당)
월 렌탈료 | 40,000원 평생가임비 | 242,000원

02 | 맥소 스탠2 (개당)
월 렌탈료 | 48,000원 평생가임비 | 280,000원

03 | 맥소 크리스프2 (개당)
월 렌탈료 | 48,000원 평생가임비 | 280,000원

04 | 맥소 스코프4 (개당)
월 렌탈료 | 54,000원 평생가임비 | 340,000원

01 | 맞춤귀속형 한달 3~4만원

02 | 제반서비스 무료

03 | 무료방문 홈 서비스

04 | 안심 손실 보상 서비스

☎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 순천·여수 본점 **061)741-4880**

☎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